

**아가의 내재적인 의미에 따라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유지함으로써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함**

8/19 월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4:1, 7-8

1 겨울이 되기 전에 올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으불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살전 5:23

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요 14:21

21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마 24:45-46

45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말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46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계 22:12

12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값아 주겠다.

행 26:16

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
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4 장 1 절은 바울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과 그분의 왕국을 자신의 생활과
일의 격려와 목표로 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것은 우리를 심판하시어
우리 각 사람에게 보상하시기 위한 것이고(마
16:27, 계 22:12), 그분의 왕국은 그분께서
이기는 이들과 함께 통치하시기 위한
것이다(계 20:4, 6). 사도는 이 두 가지를 자신을
위한 격려와 목표로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두고 자신의 인도 아래 있었던
디모데에게 말씀의 사역을 신실하게 성취하라고
명령했다.(딤후 4:1 각주 2)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곧 그분께서
돌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사모해야 하며,
간절한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딤후 4:8 각주 5)

오늘의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3 장 1 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날들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또한 ‘힘든 때,
비통한 때, 위험한 때’를 의미한다. ...
디모데후서 3 장 12 절에서 바울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그때는
참으로 어렵고 비통하며 위험할 것이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디모데여, 나는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가 서
있다는 사실과 그대가 다른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격려를
받습니다. 그대는 그들과 함께 서서 교회의
하락에 대항하여 예방접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때가 그대에게 매우 어려울
것임을 그대가 알기 원합니다. 이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비통하고 위험할 때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 장 2 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왜냐하면 그대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거만하며, 험뜯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라고 말한다. 디모데후서 3 장
2 절부터 5 절까지에 제시된 예언적인 그림은
믿지 않는 사회의 악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2 장 20 절에 언급된 큰 집 곧 하락한
기독교의 부패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3 장
5 절에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라는 말이 이
사실을 입증해 준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도 없다.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대해 첫 번째로 말한
것은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이다. 세상적인 오락에 빠진
사람들이 이기적일 뿐 아니라, 심지어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는 사람들도 이기적일 수
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에는 일곱 종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급된다.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딤후 3:2, 딤후 6:10),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딤후 3:4),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딤후 1:8),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2:4)이다. 또한 두 종류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딤후 3:3-4)이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온 마음, 심지어 그의 온 존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빠져 사로잡히게 된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교회가 승리하여 영광이 가득한 날이 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락하여 비통한 날들이 오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엇에 두는지, 즉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하락하게 된 원인이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계 2:4). 교회가 승리하는 수준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45-4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 성과 함께 삶, 5 장

8/20 화요일

아침의 누림

약 1:12

12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험을 거쳐 인정받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 2:5

5 나의 사랑하는 형제님들,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전 9:25

25 경기에서 이기려고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자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벧전 5:4

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사 28:5

5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분 백성 중 남은 이들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왕관이 되어 주시며

마 16:27

27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5:10

10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 장 25 절에서 바울은 “경기에서 이기려고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자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바울은 경기에서 이기려고 다투는 모든 사람이 엄격하게 자제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매우 신중하게 그들의 음식 섭취를 주의한다. 운동선수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 자제한다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자제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6, 44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4 장 8 절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영광을 상징하는 면류관은 경기에서 승리한 경주자(고전 9:25)에게 주님의 구원에 더하여 상으로 주는 것이다. 은혜에 속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엡 2:5, 8-9)과는 달리, 이 상은 은혜에 속하거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의에 속한 것이며 행위에 따른 것이다(마 16:27, 계 22:12, 고후 5:10). 믿는 이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분의 의에 따라서 이와 같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며, 보상을 주시는 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시다. 여기에서 이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나 은혜로우신 구속자가 아니시다.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이와 같은 상이 마련되어 곧 준비되어 있음과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날에 자신이 그것을 보상으로 받을 것임을 확신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상이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이 확신한 의의 면류관은 예방접종하는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오늘날 우리가

진리의 건강한 말씀에 신실하다면, 또한 신실한 예방접종자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로 돌이키도록 그들 안으로 신성한 예방접종의 요소를 분배한다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러한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신실하다면 의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받을 것임을 의미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황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나 은혜로우신 구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것을 아는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판장 앞에 서기 위해 자신을 예비해야 한다는 경고와 격려를 받아야 한다. 나는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이와 같이 엄중한 명령을 주님의 백성에게 가져갈 부담을 취하기 바란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모두의 재판장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한다. 마태복음 25 장에 따르면, 주님의 모든 종은 그분과 결산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21 절)라고 말씀하시든지,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26 절)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의에 따라 우리가 보상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실 것이다.

주님의 오심과 그분의 왕국은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 장 1 절부터 8 절까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지하게 명령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단지 휴가와 기쁨의 때일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지극히 엄중한 때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디모데에게 명령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엄중한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64-6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6

8/21 수요일

아침의 누림

빌 3:9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롬 3:24

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행 13:39

39 또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분 안에서 믿는 이는 모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 3:24, 27

24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끄는 어린이 인솔자가 되었습니다.

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벤전 2:24

24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낮게 되었습니다.

계 19:8

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빌립보서 3 장 9 절에서 바울은 단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말한다. ... 바울은 자신의 의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기를 원했다.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초월한 상태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가 되실 수 있음을 전혀 몰랐다. 율법에서 나온 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에서 나온 의이다. ... 이전에 바울은 율법에 따른 의 안에서 살았다. ... 그러나 이제 바울의 갈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로 가지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었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0, 180-18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빌립보서 3 장 9 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감상하는 데서 나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감상할 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시며,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 곧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서 살아 낸 하나님 자신이다. 이러한 의는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러한 의는 믿음에

근거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기초와 조건 위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 곧 최고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소유하는 기초이며 조건이다(고전 1:30).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0, 181 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믿는 이들에게 의가 되시는 것에는 두 방면이 있다. 첫 번째 방면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의가 되시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의롭게 되게 하시는 것이다(롬 3:24-26, 행 13:39, 갈 3:24 하, 27). 찬송가 237 장의 1 절은 “그리스도는 나의 의 아름다움 내 눈부신 옷”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아름다움이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옷,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는다. 이것은 외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다.

두 번째 방면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이 살아 낸 의가 되시는 것이다.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에게 의로 주어지심으로 믿는 이들을 주관적으로 의롭게 하신다(롬 4:25, 벰전 2:24 상, 약 2:24, 마 5:20, 계 19:8). 우리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주 예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갔다. 그 즉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덮는 영광스러운 옷으로 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외적으로 의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이 객관적인 의이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우리 위에 입었을 때,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셔서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셨다. 이렇게 살아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것이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적으로 의롭게 하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객관적으로만 의롭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두 방면, 외적인 방면과 내적인 방면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위에 입혀지시며,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살아 내심으로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신다.

의이신 그리스도의 이 두 방면은 또한 시편 45편 13절과 14절에서 말하는 왕후의 두 옷으로 예표된다. 솔로몬에게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녀에게 두 가지 옷이 있었다. 첫 번째 옷은 우리의 의롭게 됨을 위한 객관적인 의와 일치한다. 또 다른 옷은 우리의 승리를 위한 주관적인 의와 일치한다(계 19:8). 이 옷은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결혼 예복과 같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1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상), 5 장, 74, 7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0, 51;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1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상), 5 장

8/22 목요일

아침의 누림

시 45:13-14a

13 왕의 딸은 왕의 거처에서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우니 그 여인의 옷은 금실을 넣어 짠 것입니다.

14 그 여인은 수놓아진 옷을 입고 왕께로 이끌릴 것이고 그 여인을 뒤따르는 처녀들 곧 그 여인의 동료들도 왕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고전 1:30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눅 15:22-23

22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겹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렘 23:6

6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주하며 그가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리리니 이것이 그의 이름이라.

벰후 1:4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계 19:8

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계 3:18

18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시편 45 편 13 절 상반절에서 왕의 딸은 왕후로서 교회를 상징하고, 그 여인이 왕의 거처에서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거처로 삼는 것을 상징한다.

여기에서 ‘거처’라는 단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거처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인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삼을 때 우리는 그분의 거처가 된다. …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삼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은 거처가 되시며,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거처가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요 15:4 상)라고 말씀하셨다. …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삼을 때, 우리는 그분의 거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거처는 거처가 된다. (시편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 305-30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 여인의 옷은 금실을 넣어 짠 것입니다.”(시 45:13 하) 이것은 많은 고난을 통해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룸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교회의 의가 되신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금실을 넣어 짠 옷’은 우리를 싸고 있는 첫 번째 겹, 즉 우리를 의롭다 하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리킨다.

“그 여인은 수놓아진 옷을 입고 왕께로 이끌릴 것이고”(시 45:14 상). 두 번째 옷 곧 그 여인을 싸고 있는 두 번째 겹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한 요구 조건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의 의를 옷 입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것임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9 장 8 절은 “신부(어린양의 신부인 이기는 이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의’라는 단어는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 즉 우리가 살아 낸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우리의 구원(고전 1:30)을 위해 받은 의(그리스도)는

객관적인 것이며,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기는 믿는 이들의 의는 주관적인 것이며(빌 3:9), 이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 따라서 시편 45 편에서 왕후에게는 두 옷이 있다. (시편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 306-307 쪽)

이 두 옷은 시편 45 편에서도 발견된다. 이 시에서 왕후에게는 두 옷(13-14 절)이 있다. 첫 번째 옷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객관적인 의와 일치하고, 두 번째 옷은 우리의 승리를 위한 주관적인 의와 일치한다. 두 번째 옷은 마태복음 22 장 11 절과 12 절에 언급된 결혼 예복과 동일하다. 시편 45 편에서 왕후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녀의 첫 번째 옷은 ‘금실을 넣어 짠’ 옷이고, 두 번째 옷은 ‘수놓아진 옷’이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한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금으로 된 옷을 받았고, 이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옷 즉 수놓아진 옷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놓아지는 것은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일을 상징한다. … 비록 우리에게 첫 번째 옷이 있지만, 두 번째 옷은 성령의 수놓으시는 일을 통해 현재 준비되는 과정 중에 있다. 이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분을 뵈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수놓으시는 일, 곧 변화시키시는 일 아래 있다.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옷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은 엄중한 문제이다.

이것이 너무나 엄중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첫 번째 옷만을 주의한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구속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보상에 관해서는 어떠한가? 우리에게는 의롭게 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겠는가? 마태복음 22 장 14 절은 매우 분명하게 어떤 이들은 선택받지만 어떤 이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직 성령의 수놓으시는 일을 통하여 산출된 두 번째 옷을 가진 이들만이 선택받아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4, 640-64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6, 54;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3권, 시편에 제시되고 예표된 그리스도와 교회, 7장

8/23 금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4:18

18 주님께서 나를 온갖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 7:21

21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마 13:43a

43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벧후 1:10-11

10 그러므로 형제님들, 더욱 부지런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언제라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마 26:27-29

27 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28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29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 장 18 절에서 ... 이 하늘에 속한 왕국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마 13:43), ‘내 아버지의 왕국’(마 26:29),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엡 5:5),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벧후 1:11)이며, 이기는 성도들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4 장 8 절에 있는 의의 면류관과 동일하며,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는 믿는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 바울에게는 승리에 찬 방식으로 자신이 이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구원받을 것임을

선포할 확신이 있었다.(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73-7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주님을 부르는 것과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다(롬 10:13).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한다. 따라서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부르며 또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마 7:21 각주 1)

천국에는 실재(마 5-7 장)와 외형(13 장)과 출현의 세 방면이 있다. ... 천국의 출현은 마태복음 24 장과 25 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밝히신 대로, 천국이 능력을 가지고 실지로 오는 것이다. ...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천국이 출현할 것이다. ... 천국의 실재 안에는 승리한 이기는 믿는 이들만이 있다.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후에 이 이기는 믿는 이들은 천국의 출현에 참여할 것이다.

오늘날 믿는 이들은 등불처럼 빛나지만, 장차 올 시대에 이기는 이들은 해처럼 빛날 것이다(비교 마 13:43 상).

해처럼 빛날 사람들은 의인들로서 왕국의 아들들이다(마 13:38). 마태복음 5 장 20 절에 따르면, 이 왕국의 아들들은 뛰어난 의를 지닐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전 존재가 빛날 정도까지 의롭게 될 것이다. 이 의는 우리에게서 살아 표현되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왕국의 실재 안에서 살도록 하고 장래에는 왕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은 빛이시다(요일 1:5, 딤후전 6:16). 하나님

그분 자신인 신성한 빛은 햇빛보다 훨씬 더 강하다.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이 빛이신 아버지를 누릴 때,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안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주님과 함께 새 언약의 잔을 새것으로 마실 것이다. 마태복음 26 장 29 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상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었다(마 26:26-30).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주님은 상을 세우신 때부터 육신적으로는 믿는 이들에게서 떠나 계시게 될 것과,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들과 함께 새것을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주님은 다시 오신 후에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새 언약의 잔을 새것으로 마시실 것이다. 따라서 마태복음 26 장 29 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은 천국의 출현 동안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이기는 이들에게 성취될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1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86, 183-18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살아 있고 실지적인 길, 개정판, 4 장

8/24 토요일

아침의 누림

마 25:21

21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계 20:6

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마 8:11

11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상에 앉겠으나,

눅 18:29-30

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30 반드시 이 시대에 여러 배를 보상으로 받고,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계 2:26-28

26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27 그는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권위를 줄 것이다.

28 나는 또 그에게 셋별을 줄 것이다.

또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구약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잔치할 것이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8 장 11 절에서 이것에 관해 말씀하신다. 이 절은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상에 앉겠으나”라고 말한다. 이것은 천국의 출현을 가리킨다. 천국의 출현에서 이기는 이방인 믿는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포함하여 구약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잔치할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1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86, 18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6 장 10 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에 관해 말한다. 이 절에서 ‘상속받지’라는 말은 누림을 암시한다. ... 장차 올 왕국은 이기는 이들에게 즐거운 유업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왕국의 출현은 주님과 함께하는 누림으로서 이기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보상이 될 것이다. ... 이것은 우리가 이기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격려제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기는 생활을 함으로써 장차 올 왕국을 보상으로 상속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기는 믿는 이들은 장차 올 왕국에 참여할 때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음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마 19:29 하, 비교 23-24 절).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오는 시대, 즉 천국의 출현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다(눅 18:29-30). 왕국의 출현 안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주 예수님과 함께 더 충만한 방식으로 영원한 생명의 누림에 참여할 것이다.

장차 올 왕국에 참여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혼을 얻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며 우리의 혼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혼 곧 우리의 자아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면, 또한 그분의 표준에 따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그분은 돌아오실 때 우리에게 왕국을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 왕국 안에서 우리의 혼에는 어떤 문제들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혼생명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혼생명을 구원할 것이며 우리의 혼의 구원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패배한 믿는 이들이라면 왕국 시대 동안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 형벌은 우리의 혼과 관련되며, 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의 표시인 이를 값을 포함할 것이다.

장차 올 왕국 안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20 장 4 절 하반절은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비교 6 하절)라고 말한다. ... 디모데후서 2 장 12 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견딘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라고 말한다. 이 절들은 장차 올 왕국의 출현 안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다스릴 것임을 가리킨다.

장차 올 천국의 출현 안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민족들을 통치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 장 26 절과 27 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그는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권위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상으로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주님의 이 약속은, 타락한 기독교를 이기라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데 참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시편 2 편 9 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다. 장차 올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 동일한 권위를 주실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1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86, 186, 188, 191, 19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1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86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39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황폐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혼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10:1-10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 47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The New Covenant: The More Excellent Ministry, the Better Promises, and the Better Covenant, through the Greater and More Perfect Tabernacle

Scripture: Heb. 8:1-10:18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35-39

Supplemental Reading: *CWWN*, vol. 9, "The Present Testimony (2)," *The New Covenant* (4)-(6); *A General Sketch of the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Christ and the Church (part 3—Hebrews through Jude)*, ch. 27

Questions:

1. What is the difference, if any, among a promise, an oath, a covenant, and a testament?
2. What does the new covenant include?
3. In what ways are the ministry of the new covenant more excellent than the ministry of the old covenant and the promises of the new covenant better than the promises of the old covenant?
4. What is the significance of Christ as "a Minister of the holy places...a High Priest of the good things...through the greater and more perfect tabernacle?"

8/25 주일

아침의 누림

마 16:25-26

2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마 25:23

23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눅 9:23-24

23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24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히 10:37-39

37 이것은 “왜냐하면 잠시 후에는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38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간다면, 나의 혼은 그를 기쁘게

벤전 1:9

9 여러분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1권, 믿는 이들, 메시지 186

찬송: 295 (英) 그리스도는 나의 의 (中:237)

1 그리스도는 나-의 의 아름다움 눈부--신 옷 이 옷 입고- 보좌로 가- 난 기뻐 찬-양 드- 리네.

2 주님의 보혈 믿-으니 하나님 시은좌--로 가 날 위해 흘-린 보혈이- 죄인을 위-해 말-하네.

3 주 구속 나를 해-방해 죄와 수치 두려--움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난 담대하-게 나-아가.

4 구속받은 모든- 성도 당당하게 선포--하네 죄인 구원-한 주 예수- 그 귀한 이-름 자-랑해.

5 옛 창조 다 사라-져도 깨끗한 이 옷 영--원해 세월 가도- 변치 않는- 그 영광 향-상 새-롭네.

6 그 얼굴 뵈는 날-까지 언제나 주 자랑--하리 우리의 아-름다운 옷- 영원한 의-인 주- 예수.